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게으름의 등장

안톤 숄츠
코리아컨설트 대표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에 대해 받은 첫 인상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다. 불과 40~50년 전에 전쟁과 가난에 힘들어하던 나라에서 아시아 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눈부신 급성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천연자원이 펑펑 쏟아져 나와 부국이 된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한국의 성공은 힘든 노동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고통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강인함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한가?

그동안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한국을 일으켜 세웠던 이전 세대와 달리 앞으로 이끌어갈 세대는 전과 같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전에 없던 게으름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늙은 용이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난 듯 과거의 위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의 급부상을 본다면 이런 노파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해가 진 후에도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고층 빌딩가의 사무실에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로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감히 게으름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일하는 것'은 종종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과거 한국은 성공에 굶주려 있었다. 그러나 한 20년 전부터 등장한 신세대들은 빈곤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는 듯하다. 부모들은 아이의 안녕을 추구하며, 결국 응석받이로 키우고 있는 셈이다.

매니저들은 업무 추진에 적합한 새로운 인력을 찾고자 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가 주는 돈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생활해 온 젊은이들이 뭐하러 고생해서 돈을 벌겠는가? 대학 졸업생들은 단순 노동은 해도 프로젝트 진행자로서의 업무의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에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종종 볼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던 광경 중의 하나가 3층 밖에 안 되던 건물 안 승강기 앞에서 학생들이 겹겹이 줄 서 있던 모습이다. 서둘러 계단으로 가면 그나마 지각은 면할 수 있을 텐데도 지각을 하더라도 덜 걷고 싶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함께 등산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보면 학과 학생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전에 점심을 사겠다고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면 처음 듣게 되는 질문은 "하이킹 대신 바로 점심 먹으러 가면 안되나요?" 라는 것이다.

분명 과거에는 달랐을 것이다. 지금도 산에 오를 때면 한국을 일으켜 세웠던 전세대의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강한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나의 큰 보폭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산길을 힘차게 오르고 내려가는 이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차장이 없는 카페나 식당은 안 될 말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10m 이내의 주차장은 기본이며, 발렛 파킹과 같은 대리 주차 서비스를 먼저 찾는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한 100m가 좀 넘게 걸어보자고 했던 것은 분명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구미에 부응하기 위해선지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 내에서 돈 내기만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단 생각이 들 정도다.

젊은이들의 결혼은 점점 더 늦어지고, 서른살이 넘어서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모님의 집에서 의지해 살고 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가며 힘들게 모은 부모의 돈과 자산을 의존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부모로 부터 받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면 앞으로도 늘 그렇게 편히 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한국은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고, 일이나 돈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곤두박칠 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력을 움직여 왔던 추진력과 창조 능력은 대를 잇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일이라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태도로 만들어낸 기적도 찾기 어렵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는 상황을 신세대가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를 축척해 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 과정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욱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의료칼럼

남자도 갱년기?

변 동 원
광주 트루맨남성의원 원장

의원을 방문하는 장년층들의 주된 호소중에 젊었을 때는 철판도 씹어 먹을 정도로 왕성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상적인 일도 힘에 부치고 쉽고 피로하다는 사람이 많다. 성생활에 대한 의욕저하와 발기력 감퇴 및 관계중 발기가 꺼지고 사정조차 빨라져 당혹감에 오는 분도 많다.

이는 남성 갱년기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 갱년기는 들어봤지만 남성도 갱년기가 있냐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 남성갱년기의 큰 원인인 남성 호르몬은 30대에 정점에 이르다가 낮아져 50세를 전후해 감소된 호르몬 증상을 심신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동안은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하며 치료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러한 노화조차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완성시켰으며, 갱년기 극복에 관심만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의학계에서는 40대 이상 남성의 30% 정도가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르몬은 70대에 30대의 1/2, 80대는 1/3 수준까지 감소된다. 성생활과 관련된 발기력과 성욕저하 뿐만 아니라 식욕도 예전같지 않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등의 신체증상도 있지만 삶에 대한 우울감, 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정신적 증상도 동반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다. 신체 외적으로는 피부 탄력도의 저하와 내장 지방의 증가로 배가 나오는 것도 남성호르몬의 저하로 인한 신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남성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연, 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지속적인 운동과 주기적 건강관리를 통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혈액검사를 통해 자기 연령대에 비해 낮은 남성호르몬 수준이 보인다면 인위적인 호르몬 보충요법도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남성갱년기 치료의 목적은 성기능 및 삶의 활력을 증진시켜 갱년기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르몬 보충요법에는 경구약, 주사제, 경피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치료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투여 전 전문의와의 5답을 통해 치료 전에 금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주의를 요하며 혈액검사를 통한 전립선암 수치(PSA) 확인 및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의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심한 심폐질환자, 당뇨병이나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있는 환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후 주기적 방문으로 갱년기증상의 호전과 부작용 등을 관찰하고 신장·체중도 측정해야 하며, 초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전립선암의 발병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호르몬 보충요법 이외의 방법으로 항산화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산화요법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셀레늄, 리코펜, 카테킨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으로 하루아침에 만족스런 성생활을 이루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 불을 지피는데 호르몬 보충이 서서히 타오르는 무연탄과 같은 존재라면, 이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발기 부전제 사용은 시기 적절하게 불이 타오르게 하는데 도움이되는 원리와 같다.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50대까지는 자가 발전으로 유지했다면, 나머지 50대는 현대 의학으로 보충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고

창조경영, 호남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 용 훈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새삼 창조경영 ·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마다 모든 정부부처가 창조경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출연키로 하였고 LG그룹 역시 LG사이언스파크에 8,000억원을 추가투자하기로 하는 등 재계에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창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등을 이룩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유형적인 것, 제조업에 국한되는 용어였다

종이를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나침반을 만들고...세계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약으로 만들어 판매했지만 탄산음료라는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2012년도 브랜드가치가 778억달러(우리나라 돈 약 86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역사적인 창조물이 아니더라도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대박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것을 만들거나 얻어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이상으로 물질적 · 시간적 투자나 노력이 엄청나고 실패에 대한 부담도 훨씬 크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다

최초로 병따개를 만들었지만 병을 만든 사람이 없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는 우스개 소리만큼이나 창조활동은 결코 만만한 경제활동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창조경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창조경영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품으로 프랑스는 관광산업만으로 2011년도 545억달러(우리나라 돈 약 60조원)를 벌어들였으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만 해도 146억달러(우리나라 돈 16조원)를 관광수입으로 올리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멋진 자연경관과 볼거리, 먹거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무궁무진한 관광자원들에 이야기를 덧입히는 창조경영이 부족했을 뿐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역시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쓴 말임)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자부심, 사람에 대한 정이 무궁무진하여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넘쳐나는 곳이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역시 발빠르게 신성장동력산업, 잠재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창조서비스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창조경영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어 호남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전라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구슬을 꿰는 심정으로 창조활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새 정부 역시 호남에 대한 투자가 나라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투자에 더욱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교통흐름 방해하는 접촉사고 멱살잡이 이젠 그만

운전을 하던 중 시내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막혀서 앞이 빠지질 않았고 날은 더운데 좀체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던 길을 35분이나 걸려서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로상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사고 난 채 세워놓고는 서로 잘했다고 큰소리로 다투다가 결국 경찰 부르고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더욱 화를 돋우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다른 차들이 그냥 지나가는게 아니라 그 옆을 지나며 차의 속도를 줄이고 사고 현장을 일일이 구경하면서 빠져 나가다 보니 차들이 줄 나래비를 서게 된것이다.

그리고 사고후 사람이 심하게 다쳤고 잘잘못을 가리기에 애매한 사고이면 현장 보존을 위해 차를 사고 위치에 세워두는게 맞지만, 단순 접촉사고이면 흰색 락카칠을 해놓고 차를 뺀 후 보험사 직원을 부르면 될 일을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우는 것은 정말 사라져야 할 일 아닌가.

영국에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 상호간에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한두번 본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상반되고 한심한 일인가.

시가지 내에서의 사고는 90%가량이 가벼운 접촉사고이다. 이때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자기와 상대방의 차량의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고나서 차량을 이동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현장 표시가 여의치 못하거나 현장상황이 잘잘못이 서로 애매할 경우에만 현장을 변경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에 맡기면 될 것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제발 사고 현장에서 상호 멱살을 잡고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언행은 삼가 해야 할 것이며, 그 옆을 지나가는 차들 역시 제발 구경하지 말고 신속하게 빠져 나갔으면 한다.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社 說

농업예산 대거 삭감, 농정 포기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향후 4년간 농어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농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즉 공약가계부 예산 134조8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내년부터 4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빼내 복지비 등 국정과제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농정 포기나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은 FTA체결과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폭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로 작물 생산이 크게 줄고, 수산물 생산량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1·4분기 농어업 분야 실질 국내총생산이 -4.4%로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어업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정부의 예산 감축이 현실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전남지역 중심의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균형을 잃은 정책 탓이다.

농어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에는 아랑곳없이 국민 복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건 모순이자 가당치 않은 일이다.

박 대통령은 농어업이 흔들리면 국가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대선에서 10년간 24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예산 삭감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살인 부른 보험사기 허술한 규정이 문제다

보험사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보험금을 노린 집단사기 사건이 일반화된데 이어 '보험 살인'도 이제는 끊임이 없다. 얼마 전 아버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이 흉기로 살해하는가 하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수장시킨 아내 등 보험금과 관련된 살인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여수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도 보험금을 노린 지인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40대 남성과 여성 2명 등 3명이 이 여인의 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뒤 바닷가에 스스럼없이 시체를 유기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추락사했다고 허위신고까지 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범만도 무려 113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주부, 심지어 교사와 아마추어 운동선수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수익을 노린 병원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살인 등 극단적이고 다수의 범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사기로 지급된 보험료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제도 자체가 극히 허술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현장 조사가 극히 형식적이고, 크지 않은 부상은 역시 진단서 한 장으로 증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설계사와 의사들은 사기인 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줄이려면 억대의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조사방식을 과학화, 선진화하고 비리 신고보상금제라도 도입해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無 等 鼓

여성전성시대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인물 중 한 명은 남북 당국 간 회담 실무접촉에 북한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서기국 부장을 꼽을 수 있다.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 당시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던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수많은 대남 협상가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여성인 김 부장을 회담대표로 파견한 것도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녀는 37세인 2002년부터 북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 북한 실세의 딸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미 3국을 순방하는 동안 카메라는 그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코스타리카 국립 아동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내조외교'를 펼쳤으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국립 악단의 연주회장에서는 즉석 북채 연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彭麗媛)은 국민가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미모를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공항패션이 특히 인기를 모았다. 그녀의 코트와 가방 등 모든 제품이 품절현상을 일으켜 일명 '완판녀'로 등극할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언론은 퍼스트레이디로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펑리위안 여사와 미셸 오바마 여사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결국 이번에는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각각 변호사와 국민가수라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과 미모의 재원이라는 점도 이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지갑이 화제가 돼 품절현상을 빚으며 펑 여사와 같이 완판녀 대열에 합류했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그녀들 처럼 항상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인기 속에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통해 사랑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